

특별리포트

# 정읍 - 서울 강서구 자매 결연

### 행정·경제·문화·체육 등 교류·협력 추진

정읍시와 서울시 강서구가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김생기 시장과 노현송 서울시 강서구청장은 지난 8일 정읍시청에서 양 자치단체 의회 의장을 비롯 시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양 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양 측은 ▲행정, 경제, 문화, 체육 등 상호 관심사항 교류협력 추진 ▲자연 체험학습, 역사·문화 탐방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 ▲분야별 선진 행정시책 교환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모두 4개의 협약과제에 합의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민 밀착형 혁신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혁신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상호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수도이자 심장부인 서울시 강서구는 마곡지구 성공개발과 강서미라클 메디특구 지정 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 정책을 통해 '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실현해가고 있는 선진모범도시"라며 이러한 강서구의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맺게 돼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관광의 도시이자 전국 최고의 단종 명사이면서 KTX 개통과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을 통해 전북 서남부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정읍시와 자매결연을 갖게 돼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양 지자체장은 "앞으로 행정과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감으로써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앞당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자매결연은 서울시 강서구 정읍향우회장의 주선을 계기로 양 측이 상생 발전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성사됐다.

강서구와의 자매결연으로 정읍시 자매결연 도시는 모두 6개(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강서구, 대구시 수성구, 경기도 남양주시, 강원도 속초시, 경상남도 사천시)로 늘었다.

한편 시는 민선6기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서울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맺는 등 국내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발전에도 주력해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정읍시는 제244차 안전점검 주간(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지난 7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가졌다.

시는 "본격적인 물놀이 계절을 맞아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이날 정읍시 물놀이 관리지역 10개소 중 중점관리지역인 6개소를 찾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와 경고 안내판의 비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도 제작해 내걸었다.

시는 또 이날 CGV 오거리에서 하나마트에 이르는 중앙로 일원에서 시청과 정읍소방서,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가두행진 캠페인을 가졌다.

김생기 시장은 "물놀이 계절을 맞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6.1 ~ 8.31)을 운영,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쏟고 있다"며 "물놀이 관리지역 10개소를 선정하고 해당지역에 구명환,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를 비치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시장 이진식)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지난 8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여성계 리더 및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김제시와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가 제2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고 범시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제시장 부인인 남정숙 여사, 전북도지사의 부인인 오경진 여사, 김중회 국회의원, 나병문 시의장과 시의원, 남성리더 등이 대거 참여하여 자리를 더욱 빛냈다.

또한, 직장내 공동어린아이를 설치한(주)참고을을 비롯, 여성발전과 양성평등에 기여한 유공자 22명에 대한 시상식과 여성단체의 활동 사진 영상전시로 시민들에게 여성단체의 화려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김제시청에서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매주 금요일은 가족사랑의 날로 정하고 6시 정시면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속에서 일·가정 양립의 정책 체감도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양성평등주간 행사 성료

김제시(시장 이진식)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지난 8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여성계 리더 및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김제시와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가 제2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고 범시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제시장 부인인 남정숙 여사, 전북도지사의 부인인 오경진 여사, 김중회 국회의원, 나병문 시의장과 시의원, 남성리더 등이 대거 참여하여 자리를 더욱 빛냈다.

또한, 직장내 공동어린아이를 설치한(주)참고을을 비롯, 여성발전과 양성평등에 기여한 유공자 22명에 대한 시상식과 여성단체의 활동 사진 영상전시로 시민들에게 여성단체의 화려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김제시청에서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매주 금요일은 가족사랑의 날로 정하고 6시 정시면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속에서 일·가정 양립의 정책 체감도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보건소 치매인지 증진 교육

김제시보건소(소장 박래민)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 5월3일부터 7월 7일까지 19회에 걸쳐 치매인지재활 프로그램을 매주 화·목요일에 실시 성황리에 마쳤다.

치매인지재활 프로그램은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한 인지증진으로 치매의 예방은 물론 증상을 완화시켜 건강한 생활로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남력 훈련 및 신체리듬활동 등 9가지 훈련을 통하여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며, 웃음치료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초빙 즐겁고 신나는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행복추구 맞춤형서비스로 질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에 참석한 김도씨는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전에는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지금은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졌다"면서 만족함을 전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생기 시장은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총영표 환경노동위원장 및 각 위원회별 수석전문위원을 방문해 2017년도 국가예산의 증액 또는 추가 반영을 요구했다.

# 김생기 정읍시장 국가예산 확보 '총력'

## 중앙부처·국회방문 13개 중점사업 771억원 내년 국비 반영 요청

김생기 시장이 201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4월부터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국가예산 관련 중앙부처와 회의를 방문해 지속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 시장은 부처와 회의를 방문, 중점관리대상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김 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 7일에도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총영표 환경노동위원장 및 각 위원회별 수석

전문위원을 방문해 2017년도 국가예산의 증액 또는 추가 반영을 요구했다.

이날 김 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13개 중점관리대상사업 771억원(13개 총사업비 2천419억원)을 내년도 국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정읍경찰서 신축 135억원, 동화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296억원, 기상인체협교육관 시설확충사업 35억원, 제3공구매립시설 조성공사 5억원, 국립공원내장산 관리사무소 신축 48억원, 내장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수원 건립 119억원, 화학연구원 전북분원 건립 20억원, 학술

연구교류센터 건립 15억원, 방사선백신전용 특수시설 확충사업 10억원, 영장류지원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36억원, 이온화 에너지이용 축산부산물의 활용 기술개발 32억원, 내장산 산림휴양단지 조성 10억원, 농축산물 미생물 제품 품질관리 지원사업 10억원이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상임위 의원장 및 수석전문위원들은 건의 사업 국비 확보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김 시장은 "예산이 확정되는 12월 정기국회까지 건정의 끈을 놓지 않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주요현안 정책간담회 개최

부안군이 지역 정치권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현안을 해결하려고 '정치권 주요 현안 정책간담회'를 갖고 2017년 국가예산 확보 대응책을 모색했다.

8일 부안군은 군청 3층 회의실에서 국민 의당 김중회 국회의원과 최훈열·조병서 전북도의원, 오세웅 부안군의회 의장 및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권과 함께 하는 2016년 부안군 주요현안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부안군은 간담회에서 새만금철도 연장, 새만금 게이트웨이 개발 촉진, 2023 세계잼버리 유치 등 군정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공조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특히 2017년도 국가예산 편성작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부 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정치권은 부안군 주요 현안사업 중 국회 상임위원 쟁점사업 11건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김중구 부안군수는 "지역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하니 마음이 든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 줄 수 있다는 희망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신규사업 역대 기조 등 어려움도 많지만 지역 정치권과 합심해 부안의 '부라 민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부안군 7월 정기분 주택·건축물 재산세 부과·31일까지 납부 당부

부안군은 2016년 7월 정기분 주택·건축물 재산세 29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주택 1만 8307건 7억 5000만 원, 건축물 5266건 21억 원 등 총 2만 3573건 29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작년대비 6%(1억 7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신축건물 증가 및 주택 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택 분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눠 50%씩 부과되며 재산세 본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 일괄 고지 된다. 토지는 따로 9월 정기분에 부과할 예정이다.

납부는 전 금융기관에서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회원들이 직접 모든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정담을 나누고 국수를 전달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사랑의 국수·음료수' 전달

김제시 교월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영이)는 지난 8일 관내 39개 경로당을 방문하여 손수 준비한 국수 및 음료수(100만원 상당) 등을 전달하였다.

마을 어르신들이 장마와 무더위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사랑의 국수' 전달 행사는 39개 부녀회원들이 코스모스 꽃길 꽃모듬, 지평선축제 음식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립한 기금으로 준비되었으며, 회원들이 직접 모든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정담을 나누는 시간과 함께 국수를 전달하여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이영이 부녀회장은 "오늘 전달해 드린 국수로 어르신들께서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 올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어르신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상문 교월동장은 "항상 지역의 어려운 일에 솔선수범해주시는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있어 더불어 함께하는 교월동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된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한편 교월동 새마을부녀회는 지역내 소외계층,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섬김기탁, 연말연시 떡국 나눔봉사, 취약지역 청결활동, 지평선축제 대비 코스모스 길 조성 및 경로당 증식봉사활동 등 다양한 지역사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정읍시보건소, 65세 폐렴구균 무료 접종

정읍시보건소가 65세(1951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에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등)은 치명적이며 균혈증의 경우 사망률은 60%이고, 수막염의 경우 80%에 이른다.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는 23가 다당질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침습성 폐



부안 진서면은 곰소항 횡집 주변의 방치폐기물을 일제히 철거하고 주변을 정비했다.

## 부안 진서면, 여름 관광객 맞이 환경 정비

부안군 진서면이 여름휴가철을 관광객 맞이 '클린 진서 만들기' 구슬땀을 흘렸다.

이를 위해 진서면은 곰소항 주변 횡집 앞에 수년간 방치돼 미관을 저해했던 흉물 폐수조관 등 각종 폐기물의 소유자를 일제 파악하고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철거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7일 진서면은 집게 차와 트럭 등을 동원해 방치된 폐수조관 8개 등 방치폐기물을 일제히 철거하고 주변을 정비했다.

주민들은 "이렇게 더운 날씨에 면사

## 김제자원봉사센터 단체장 간담회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이사장 최병철, 센터장 정창섭)는 지난 8일 김제시자원봉사단체장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김제시자원봉사센터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16년 상반기 사업실적 보고와 하반기 주요 사업안내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평선축제 봉사단 발대식 및 교육, 재난재해 봉사단, 제9회 김제시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등 각종 프로그램에 따른 자원봉사자 모집 및 협조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자원봉사센터와 단체 간 적극적인 협력 관계 구축과 사업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김제=곽노태 기자